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이 인문사회과학 대학생들의 정보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The Influence of Enneagram Personality Styles on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tudies

김 현 희 (Hyun-Hee Kim)*

장 유 리 (Yoo-Ri Jang)**

목 차

- | | |
|-----------|-------------|
| 1. 서론 | 4. 조사 결과 분석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
| 3. 연구 방법 | |

초 록

본 연구는 정보행동의 개입변수로 작용하는 심리적 요인인 성격 특성에 따른 이용자의 정보추구행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200명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성격검사 및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성격 특성 분석을 위해 한국형 에니어그램(KEPTI) 도구를 사용하여 세 가지 힘의 중심과 아홉 가지 성격유형들로 구분하여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 정보추구행태에는 '정보이용동기', '학술 정보수집과 탐색패턴', '학술 정보탐색 문제점, 장애 인식도 및 만족도'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이 있다. 분석 결과, 성격 특성이 대부분의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힘의 중심 그룹에 의해서 분류된 세 개의 성격 집단(사고형, 감정형, 본능형)을 분석한 결과, 각 집단에 속한 세 가지 성격유형들은 일관성 있게 유사한 정보추구행태를 보이지 못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styles on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o this end, first, Korean Enneagram Personality Training Indicator (KEPTI) tool was used to measure Enneagram personality styles. Next, to measure information seeking activities, 200 of undergraduate students were recruited, and a questionnaire with 13 questions was designed. The questions included information usage motivation, how to collect and search scholarly information, challenges faced in the search process, level of satisfaction, and the use of SNS (Social Network Service). This research concluded that personality traits affecte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nd Enneagram types of each center of energy consistently did not show similar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키워드: 에니어그램, 성격 특성, 정보추구행태

Enneagram, Personality Style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imhh@mju.ac.kr)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생(skyoori0112@naver.com)

논문접수일자: 2014년 7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4년 8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8월 1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237-264, 2014.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3.237]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최근 도서관 이용자들은 물리적 공간인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일반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정보를 탐색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정보를 탐색하지만 검색된 결과에서 적절한 정보를 가려내는 일,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일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Head and Eisenberg 2011).

Wilson(1999)은 정보행동연구 모형에서 정보행동의 개입변수로 심리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역할관련 및 대인관계 요인, 환경적 요인 및 정보원 특성 요인을 개입변수로 설정해 이 변수들이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한편 Ingwersen(1996)은 정보탐색은 이용자의 흥미, 업무, 이용자의 현재 인지적 상태, 정보 요구, 정보 행태에 의한 개인적인 인지 공간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고 보고 하였다. Wilson(1999)은 Ingwersen이 언급한 개인적 인지 공간이 그의 모형에서 언급한 개인적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인간의 행동 특성 전반을 매개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성격은 인간 내면의 성격 핵심이 반영된 각자만의 고유한 정서와 사고의 흐름이 상황 속에서 일정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라 정의된다(Phares 1991; 김희섭 2004). 이와 같이 성격은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특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성격 특성이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Heinström(2003; 2005)은 성격을 포함한 심리적 메커니즘은 개인이 자극을 수용하고 정보를 획득하여 사물을 알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독특한 양식인 인지 능력(Ingwersen 1996)이나 감정(Kuhlthau 1993)보다 정보추구행태와 더 많이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Heinström(2003; 2005), 김희섭(2004), Halder, Roy 및 Chakraborty(2010), Kwon과 Song(2011), 정영미(2012)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정보의 이용행태 및 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특정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었을 때 수용하는 사람의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달라진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Carver 2004). 예를 들어서, 테러 공격(공포)에 대한 반응에서, 접근 동기가 쉽게 활성화되는 개인(예, 이미지에 표출된 상황을 해결하여 수습하려는 의도를 갖는 사람)은 공포를 느끼는 대신 분노를 느끼고 반면에 회피 동기가 강하게 활성화되는 개인들은 공포를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개인의 특성은 시각 정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개입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 웹 포털들이 도서관에서 제공해왔던 자원과 제공할 수 없는 일부 콘텐츠까지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계는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적합한 정보 서

비스의 제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이 정보추구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정보추구행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정보이용동기’, ‘학술 정보수집과 탐색패턴’, ‘학술 정보탐색 문제점, 장애 인식도 및 만족도’는 물론 최근 이용이 빈번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이용’을 조사한다. 또한 성격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국형 에니어그램(Korean Enneagram Personality Training Indicator, KEPTI) 성격검사도구를 이용한다. 한국형 에니어그램을 이용한 이유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검사도구이면서, 기존 연구들(정영미 2012; 한윤옥 2010)에서 성공적으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자인 대학생의 성격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정보추구행태에서 성격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정보추구행태의 차이를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에 반영하여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대학도서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1.2 연구문제와 방법

대학생의 정보추구행태가 성격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문제들을 조사한다.

(1)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이 정보추구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에니어그램 힘의 중심에 의해서 분류된 세 가지 성격 집단(사고형, 감정형, 본능형)에서 각 집단에 속한 성격유형들은 서로 유사한 정보추구행태를 보이는가?

본 연구는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인 성격 특성에 따라 온라인 정보추구행태에서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4년제 대학교 학부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격 특성 이외에 대학 환경, 전공 분야 등과 같은 다른 변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동일 대학 인문사회과학계열에 속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성격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8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한국형 에니어그램 성격검사도구를 사용해 측정하였고, 정보추구행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설계하여 이용하였다. 그런 다음,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카이제곱 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요인분석 등이 이용되었다.

2. 이론적 배경

2.1 에니어그램

에니어그램(enneagram)이라는 단어는 ‘아홉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라는 뜻을 가진다(Riso and Hudson 1996). 여기서 아홉 개의

점은 '아홉 가지로 이루어진 인간 성격 유형'을 의미한다. 에니어그램은 인간이 특정 패턴의 기본적인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에너지의 바탕 아래 성격을 아홉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에너지 근원에 따른 구분은 개인의 내적 또는 외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데 그 중 하나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중심 에너지에 따라 구분하는 '세 가지 힘의 중심(Three Triad)'이 있다.

세 가지 힘의 중심은 에너지가 발현되는 위치를 인간 신체에 따라 사고형(5, 6, 7번 유형), 본능형(8, 9, 1번 유형), 감정형(2, 3, 4번 유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며, 그 특성은 <표 1>과 같다(윤운성 2001). 첫째, 사고형(5, 6, 7번 유형)은 힘의 중심을 머리를 주로 사용하는 사고에 두고 있으며, 분석과 생각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다. 이들은 불안과 공포를 기저에 두고 특정 문제 앞에서 행동하기 이전에 한 발 물러선 관찰자적 입장을 선택한다. 둘째, 본능형(8, 9, 1번 유형)은 자신의 생존과 저항에 힘의 중심을 두고, 본능과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유

형들이 속한다. 이들은 실제적 일과 행동에 중심을 두고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며 가장 신속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취한다. 감정형(2, 3, 4번 유형)은 자아 이미지, 감정적 교감에 힘의 중심을 두고, 느낌이나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높다.

에니어그램의 아홉 가지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고형에 속한 5번 유형(사색가)은 자신이 흥미로운 분야에 관해 심도 있게 탐구하는 이지적인 유형이다. 6번 유형(충성가)은 의심과 불안이 많으나 검증된 조직이나 사람들에 관해 충성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유형이다. 7번 유형(낙천가)은 다방면에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불리우며, 이들은 낙천적이고 모험을 선호하는 유형이다.

본능형에 속한 8번 유형(지도자)은 타인으로부터 통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하며 자기 주장이 강하며 자신감과 결단력이 있다. 9번 유형(중재자)은 자신과 타인에게 느긋하며 수용적이며 타인과의 갈등을 회피한다. 1번 유형(개혁가)은 원칙과 이상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과 타인에게 엄격한 사람들로

<표 1> 에니어그램의 아홉 가지 성격 특성

유형 번호	중심 영역	유형 별칭	유형특징	심리기능
5	사고 (머리)	사색가	지적, 분석적	열린 마음, 독창적 사고
6		충성가	의무적, 전통적	동일시, 사회협력
7		낙천가	활동적, 개방적	정열, 실용적 행동
8	본능 (장)	지도자	지배적, 도전적	자기주장, 지도성
9		중재자	수용적, 목가적	수락성, 수용성
1		개혁가	합리적, 이성적	합리성, 사회적 책임감
2	감정 (가슴)	조력가	보호적, 모성애적	감정이입, 이타주의
3		성취자	실용적, 성취적	자기존중, 자기개발
4		예술가	명상적, 낭만적	자의식, 예술적 창의성

(출처: 윤운성 2001)

자신의 본능적인 충동과 분노를 억압하는 완벽 주의적 성향을 가진다.

감정형에 속한 2번 유형(조력가)은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들의 필요를 먼저 돌보는 유형으로 관대하며 사람에 대한 소유욕이 있다. 3번 유형(성취자)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잘 하며 사회적 성취와 성공을 향해 자기 개발을 하는 열정적인 경향이 있다. 4번 유형(예술가)은 민감하고 내향적이며 행동보다는 내면의 감정에 집중하는 사람들로 직관력이 있으며 평범한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힘의 중심 그룹 외에도 호니비언 그룹(공격형: 3, 7, 8; 순응형: 1, 2, 6; 움츠리는 형: 4, 5, 9), 하모닉 그룹(긍정형: 9, 2, 7; 능력형: 3, 1, 5; 반응형: 6, 4, 8)으로 구분할 수 있다.

2.2 정보추구행태, 성격 특성 및 인지 양식 간의 관계

정보추구행태는 개인이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보 요구를 표현하고 정보를 탐색, 평가 및 선택하여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된다(Majid and Kassim 2000; Wilson 2000).

먼저, 성격이 정보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einström (2005)은 심리적 관점에서 305명의 대학원생의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두 개의 독립변인인 성격 특성과 연구방법이 정보추구행태(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외향성(extraversion), 신경증(neuroticism),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성실성(con-

scientiousness), 순응성(agreeableness)으로 도출되는 성격 5요인 도구(NEO-Five Factor Inventory, NEO-FFI)를 활용해 이용자의 정보추구행태를 유형화하였다. Heinström은 정보추구행태를 쾌속 서핑형(fast surfing), 잠수형(deep driving), 광범위 스캐닝형(broad scanning)으로 구분하며, 쾌속 서핑형은 표면적인 연구방법과 관련되며 개방성과 성실성이 낮은 편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광범위 스캐닝형은 외향성과 개방성이 높은 편이며, 잠수형은 심층적이고 전략적인 연구방법을 선호하는 분석적인 학생의 전형적인 탐색패턴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Heinström(2003)은 신경증적인 성향이 높은 이용자가 정보탐색에서 시간 부족, 적합성 판정의 어려움, 데이터베이스 탐색에서의 불안정과 같은 어려움(장애)을 많이 느끼며, 성실성이 높은 이용자는 적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외향성이 높은 학생들은 유용한 정보를 친구나 교사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정보원을 통해서 얻는 경향이 높다고 기술하고 있다.

Halder, Roy 및 Chakraborty(2010)는 성격 특성에 따라 대학생의 정보추구행태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상경계열 각각 200명씩 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격 측정은 Heinström의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 5요인 검사(NEO-FFI)를 사용하였다. 측정 결과, 다섯 가지 성격 특성이 정보추구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외향성, 개방성 및 성실성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반면, 신경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과 지각된 장애 수준은 양적인 상관 관계가 있으며, 반대로 성실성과 지각된 장애 수준은 부적인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 개방성 및 성실성은 '탐색의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won과 Song(2011)은 성격 5요인 도구(NEO-FFI)를 사용하여 18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성격 특성이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세 가지 성격 특성이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학생들은 전통적인(일반적인) 학생보다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데 더 나았고, 좀 더 조직적이고 방법론적인 성향의 학생들은 검색된 정보를 평가하는데 더 비판적이고 능숙했다. 유사하게 송하나와 권나현(2011)은 성격 특성이 정보 활용 유능감과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정보 활용 유능감이 성격-학업 성취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조사를 위해서 245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표본 집단과 성격 5요인 도구(NEO-Personality Inventory)를 이용하였다. 조사 결과, 성실성이 정보 활용 유능감을 높이고 정보 활용 유능감이 궁극적으로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외향성과 개방성이 높을수록 정보 활용 유능감도 높았으나 이러한 성격 특성은 학업 성취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기술한 연구들은 성격 5요인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다음은 다른 성격 도구들(예, MBTI, 에니어그램)을 사용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희섭(2004)은 MBTI 성격

유형의 네 가지 선호지표(외향형-내향형, 감각형-직관형, 사고형-감정형, 판단형-인식형)가 Web OPAC 탐색행태 및 인터페이스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향형의 대학생들은 내향형보다 'NOT' 연산자와 언어제한 검색을 더 자주 사용하며, 감각형은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외에 감정형은 키워드 탐색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며, 정보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높게 한 반면, 판단형은 화면 구성에서 채택한 폰트 그리고 검색 편의 인터페이스 차원에서 이용자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제환(2009)은 직관형과 의존형으로 구분되는 성격적 특성에 따라 정보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대학 신입생 16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검증 결과, 감성보다 의존성이 정보행태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윤옥(2010)은 81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의 세 가지 힘과 아홉 가지 성격 유형을 이용하여 성격유형과 독서성향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학생이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상황과 독서를 통하여 추구하는 발달과업인 독서 성향은 성격유형별 차이가 나타났으나, 독서방식은 성격유형과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윤옥과 조미아(2011)는 청소년 583명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의 아홉 가지 성격유형을 중심으로 성격유형별에 따라서 독서성향과 행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이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격형에 속하는 3번(성취자)과 8번(지도자)은 자신의 성향을 더욱 발전시키는 주제에 대하여 높

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9번(중재자)은 모든 주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정영미(2012)는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중 세 가지 힘의 중심 그룹과 호니비언 그룹이 OPAC 검색 성향 및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하모닉 그룹은 유의미한 차이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세 가지 힘의 중심이 검색 패턴을 가장 잘 구분하는 방법임을 주장하고, 탐색과정의 쉬움에 대한 평가에서는 본능형이 가장 쉽게 생각했고, 그 다음이 감정형, 사고형순으로 나타나 사고형이 탐색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탐색 소요 시간은 사고형이 가장 길었고, 본능형이 가장 짧게 나타났다. 이외에 탐색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세 가지 성격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양식과 성격 간의 관계 그리고 인지 양식이 정보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지 양식과 성격 간의 관계를 살펴본 Witkin과 Goodenough(1997)은 사물을 그 환경의 배경으로부터 독립시켜 별개로 인지하는 장독립 인지 양식은 내적 지향으로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며, 사물을 그 환경의 배경에 포함해 인지하는 장의존 인지 양식은 외적 지향으로 사교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심진섭과 조경자(2008)는 사고집단이 감정집단에 비해 더 많은 장독립 인지 양식의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유재욱(1990)은 이용자의 인지 양식과 정보 검색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정확률을 높이는 탐색 질문에서는 장독립 인지 양식자가 장의존 인지 양식자에 비해서 성공적인 탐

색을 수행하였으나, 재현율을 높이는 탐색 질문에서는 이 두 그룹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Lee와 Boling(2008)은 그래픽 이용자 인터페이스 상호 작용에서 장독립 및 장의존 인지 양식자 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장의존 인지 양식자는 장독립 인지 양식자보다 더 구조화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높은 방향 감각 상실을 나타냈다. 또한, 학습자들의 성취도가 만약 그들의 인지 양식과 상충되는 정보 표현 방식이 이용될 때 감소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최문정과 정동열(2013)은 대학생의 정보탐색행태가 장독립 및 장의존 인지 양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서, 장독립 인지 양식자가 장의존 인지 양식자보다 더 많은 사이트를 탐색하고, 정보원 이용에서는 장독립 인지 양식자가 타 대학 또는 공공도서관, 신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리포트 구매 사이트를 더 이용한 반면, 장의존 인지 양식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더 이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의 성격 분석을 통해서 개인의 인지 양식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성격도구와 연구 방법에 의해서 수행되는 성격과 정보추구행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도서관 이용자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성격 분석이 가능한 에니어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의 성격이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정보추구행태 즉, 정보이용 동기, 학술 정보수집과 탐색패턴, 학술 정보탐색 문제점, 장애 인식도 및 만족도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성격유형검사와 설문지 구성

성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구로 한국 에니어그램연구소에서 인증한 한국형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도구(KEPTI)를 사용하여 성격 특성을 조사하였다. 한국형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유는 첫째, Cronbach = .90, 재검사신뢰도 = .89, 공인타당도 = .82로 유형별 문항의 양호도가 비교적 높은 검사도구이기 때문이다(윤운성 2004). 둘째, 기존 연구들(정영미 2012; 한운옥 2010)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된 검사도구이면서, 세분화된 아홉 가지 성격 유형을 힘의 중심, 호니비언 및 하모닉 그룹으로 묶어서 다양하게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지는 M대학교 인문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부생의 기본 정보 및 정보추구행태 즉, 정보이용동기, 학술 정보수집과 탐색패턴, 학술 정보탐색 문제점, 장애 인식도 및 만족도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총 1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표 2> 참조).

3.2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는 동일 대학교 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방식은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로서, 자료 수집은 해당 캠퍼스의 강의 후 설문 요청 및 학생들과 직접 접촉하여 설문을 요청하였다. 총 210명의 학부생에게 에니어그램 성격측정 및 정보추구행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자연과학계열 전공 학부생을 제외한 200명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설문조사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3 연구 가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및 설문 구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

<표 2> 설문지 구성

영역	내용	설문지 문항번호	
응답자 기본사항	작성자 배경정보	Q1, Q2, Q3, Q4	
학술 정보 추구 행태	정보이용동기	정보이용동기 빈도	Q5
	정보수집과 탐색패턴	선호정보원	Q6
		OPAC 탐색패턴	Q7
		정보수집패턴	Q8
	정보탐색 문제점, 장애 인식도 및 만족도	정보탐색 문제점	Q9
		정보탐색 장애 인식도	Q10
		만족도	Q1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소셜 미디어 이용	Q12
		가상 공간 활동	Q13

설에 따른 독립변수로는 성격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에니어그램 세 가지 힘의 중심과 아홉 가지 성격유형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정보이용동기', '학술 정보수집과 탐색패턴', '학술 정보탐색 문제점, 장애 인식도 및 만족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의 네 가지가 사용되었다. 다음에 나열한 가설 1부터 4까지는 성격 특성이 정보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기 위한 것들이며, 가설 5부터 7까지는 힘의 중심 그룹의 각 성격 집단에 속한 세 가지 성격유형들이 어느 정도 유사한 정보추구행태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들이다.

- 가설 1: 성격 특성에 따라 정보이용동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성격 특성에 따라 학술 정보수집과 탐색패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성격 특성에 따라 학술 정보탐색 문제점, 장애 인식도 및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 성격 특성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5: 사고형집단에 속한 사색가, 충성가 및 낙천가 간의 정보추구행태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 가설 6: 감정형집단에 속한 조력가, 성취자 및 예술가 간의 정보추구행태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 가설 7: 본능형집단에 속한 지도자, 중재자 및 개혁가 간의 정보추구행태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4. 조사 결과 분석

4.1 기본 정보

4.1.1 응답자의 특성

본 설문은 M대학교 인문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설문 응답자의 성별, 학년, 전공, 나이 및 성격 특성에 대한 분포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84명(42.0%), 여자가 116명(58.0%)으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학년별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3학년이 61명(29.5%)이고 4학년이 58명(28.0%)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학년이 45명(21.7%), 2학년이 43명(20.8%)의 비율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인문대학에 속한 전공자 수가 90명(45.0%)으로 가장 높으며, 사회과학대학 계열을 전공하는 경우가 69명(34.5%), 경영대학에 속한 전공자가 34명(17.0%), 법학을 전공하는 경우가 7명(3.5%) 순의 비율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를 나이별로 살펴보면, 21~22세가 65명(32.5%)으로 가장 많았고, 23~24세는 53명(26.5%), 19~20세는 37명(18.5%), 25~26세는 27명(13.5%), 27~28세는 12명(6.0%), 29세 이상은 6명(3.0%)의 순서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대한 분포는 <표 3>과 같다.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9번 유형(중재자)이 52명(26.0%)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7번 유형(낙천가)이 28명(14.0%), 2번 유형(조력가)이 23명(11.5%), 4번 유형(예술가)과 6번 유형(충성가)이 각각 22명(11.0%)의 비율로 나

〈표 3〉 응답자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분포 현황

구 분	속 성	응답 수	비율(%)
성격 유형	2번 조력가	23	11.5
	3번 성취자	12	6.0
	4번 예술가	22	11.0
	5번 사색가	17	8.5
	6번 충성가	22	11.0
	7번 낙천가	28	14.0
	8번 지도자	9	4.5
	9번 중재자	52	26.0
	1번 개혁가	13	7.5
세 가지 힘의 중심	사고형(5번, 6번, 7번)	67	33.5
	감정형(2번, 3번, 4번)	57	28.5
	본능형(8번, 9번, 1번)	76	38.0

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설문 응답자들을 세 가지 힘의 중심으로 살펴보면 8번, 9번, 1번이 해당되는 본능 중심 유형이 총 76명(3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번, 6번, 7번의 사고 중심 유형은 67명(33.5%), 2번, 3번, 4번이 포함되는 감정 중심 유형은 57명(28.5%)으로 나타났다.

4.2 가설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200명의 응답자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답변은 리커트 5점 척도, 항목에서 제일 적합한 것 고르기, 순위 부여 방식 등을 사용하였다. 순위를 매기도록 한 질문은 1순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최하위에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서, 답변이 5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순위에 5점부터 5순위에 1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후 평균 점수를 측정하여 이용하였다.

4.2.1 정보 이용 동기

대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동기를 학습정보동기, 뉴스정보동기, 생활정보동기 및 취업정보동기로 나누어 이용하는 빈도 순으로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생활정보(4.22)를 가장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습정보(3.71), 뉴스정보(3.34), 취업정보(2.62), 기타(1.26)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다섯 가지 정보이용동기에서 힘의 중심에 의한 세 가지 성격 집단간에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항목은 학습정보, 생활정보, 기타로 나타났다. 학습정보의 이용은 사고형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감정형(4.28), 본능형(3.66), 사고형(3.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한편 생활정보는 사고형(4.54), 본능형(4.24), 감정형(3.81) 순으로 나타났고, 사고형과 감정형 간(p=0.000)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습정보 및 생활정보의 이용을

〈표 4〉 정보 이용 동기

정 보	성격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학습	사고형	3.28	1.07	.000**
	감정형	4.28	0.92	
	본능형	3.66	1.03	
	전체(순위)(2)	3.71	1.08	
뉴스	사고형	3.46	0.88	.194
	감정형	3.16	0.94	
	본능형	3.36	1.00	
	전체(순위)(3)	3.34	0.94	
생활	사고형	4.54	0.77	.000**
	감정형	3.81	1.09	
	본능형	4.24	1.00	
	전체(순위)(1)	4.22	0.99	
취업	사고형	2.66	0.88	.296
	감정형	2.46	0.98	
	본능형	2.71	0.97	
	전체(순위)(4)	2.62	0.95	
기타	사고형	1.11	0.67	.037*
	감정형	1.57	1.07	
	본능형	1.13	0.55	
	전체(순위)(5)	1.26	0.80	

감정형집단의 각 성격유형별로 분석해 보니, 학습정보는 조력가(4.57), 성취자(4.25), 예술가(4.0)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생활정보는 예술가(4.45), 성취자(3.42), 조력가(3.39) 순으로 나타났고, 예술가와 조력가 간(p=0.000)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감정형에 속한 조력가와 성취자가 학습정보를 생활정보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술가는 본능형 또는 사고형과 동일하게 생활정보를 학습정보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고형은 생활정보를 감정정보보다 더 많이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학습 정보수집과 탐색패턴

(1) 선호하는 정보원

대학생의 학습정보탐색 시 사용하는 11개 정보원을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표 5〉 참조). 분석 결과, 예상한 대로 '종합검색포털'(9.59)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련 커뮤니티'(6.92), '학습 정보 검색포털'(6.19), '온라인 백과사전'(6.73), '온라인 도서관 홈페이지'(5.97), '직접 도서관 방문'(5.47), '전문정보 검색포털'(5.03), '소셜 미디어'(4.51)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의 중심 그룹에 따라서 선호정보원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고서 구매사이트'(p=0.004)

〈표 5〉 선호 정보원

정보원	성격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온라인 도서관 홈페이지 (전자저널, 전자책, 웹 DB 등)	사고형	5.57	3.23	.380
	감정형	6.04	2.87	
	본능형	6.28	3.05	
	합계(순위)	5.97(5)	3.06	
직접 도서관 방문	사고형	5.03	3.66	.187
	감정형	6.14	3.20	
	본능형	5.36	3.36	
	합계(순위)	5.47(6)	3.43	
종합검색포털 (네이버, 구글, 다음 등)	사고형	9.40	3.49	.435
	감정형	9.30	3.59	
	본능형	9.96	2.71	
	합계(순위)	9.59(1)	3.25	
학술정보 검색포털 (keris, kiss, 구글스칼라 등)	사고형	5.55	3.77	.147
	감정형	6.19	3.73	
	본능형	6.75	3.43	
	합계(순위)	6.19(3)	3.65	
전문정보 검색포털 (뉴스='newsweek', 취직='사람인' 등)	사고형	5.00	3.01	.210
	감정형	4.54	2.69	
	본능형	5.41	2.65	
	합계(순위)	5.03(7)	2.79	
관련 커뮤니티 (카페, 동호회, 블로그 등)	사고형	7.12	2.65	.754
	감정형	6.90	2.55	
	본능형	6.78	2.57	
	합계(순위)	6.92(2)	2.58	
소셜 미디어 (twitter, Facebook 등)	사고형	4.36	2.70	.799
	감정형	4.48	2.54	
	본능형	4.67	2.74	
	합계(순위)	4.51(8)	2.66	
온라인 백과사전 (wikipedia, 두산동아대백과 등)	사고형	6.49	1.86	.096
	감정형	7.36	2.88	
	본능형	6.49	2.43	
	합계(순위)	6.73(4)	2.42	
온·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yes24 등)	사고형	4.56	2.53	.148
	감정형	3.80	1.95	
	본능형	4.51	2.18	
	합계(순위)	4.33(9)	2.25	
보고서 구매사이트 (해피캠퍼스, 레포트월드 등)	사고형	4.34	2.90	.004**
	감정형	2.58	2.56	
	본능형	3.80	2.78	
	합계(순위)	3.64(11)	2.83	
지인 (친구, 선후배, 교수 등)	사고형	4.57	3.08	.361
	감정형	3.98	2.68	
	본능형	3.85	3.12	
	합계(순위)	4.12(10)	2.99	

항목만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고형(4.34)이 '보고서 구매사이트'항목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본능형(3.80), 감정형(2.58)순으로 나타났다. 사고형(4.34)과 감정형(2.58) 간($p=0.001$)과 감정형(2.58)과 본능형(3.80) 간($p=0.018$)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힘의 중심 그룹에 의하여, 정보원 선호도 차이를 자세하게 구별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아홉 가지 성격 유형으로 다시 분석해 보았다. 예상한 대로 '종합정보 검색포털'을 제외한 10개의 정보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성격 유형에 관계없이 '종합정보 검색포털'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표 5〉 참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들 중에서 '온라인 도서관 홈페이지', '직접 도서관 방문', '보고서 구매사이트' 및 '지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 도서관 홈페이지'항목은 지도자(본능형)(7.56), 사색가(사고형)(7.47), 성취자(감정형)(7.10) 순으로 높게 나온 반면, 낙천가(사고형)(4.61)가 가장 낮게 나왔다. '직접 도서관 방문'항목은 성취자(감정형)(8.39), 사색가(사고형)(6.53), 지도자(본능형)(6.11) 순으로 높게 나왔고, 낙천가(사고형)(3.93)가 가장 낮았다. '보고서 구매사이트'항목은 낙천가(사고형)(5.58), 증재자(본능형)(4.23), 조력가(감정형)(4.05) 순으로 높게 나왔고, 예술가(감정형)(1.43)가 가장 낮았다. '지인'의 선호도는 낙천가(사고형)(5.54), 성취자(감정형)(5.12), 조력가(감정형)(4.79) 순으로 높게 나왔고 지도자(본능형)(1.44)가 가장 낮게 나왔다. 요약하면, 힘의 중심의 각 성격 집단에 속한 성격 유

형들이 정보원 선호도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11개의 정보원을 4개의 요인으로 축소하여 분석해 보았다.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개수는 고유값(eigenvalue)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고유값이 1.0 이상인 4개의 요인을 주요인으로 추출하였고, 이때의 누적 설명력은 66.04%로서 전체분산의 66.04%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인과의 요인적재량의 절대값이 0.43 이상일 경우에 그 요인과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 결과 요인1과 '보고서구매사이트', '종합정보 검색포털'의 요인적재량이 각각 0.66, 0.67으로서 0.43 이상이기 때문에 이 2개의 정보원들과 요인1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온라인 도서관 홈페이지'와 '직접 도서관 방문'은 요인적재량이 각각 -0.75, -0.47로서 -0.43 이하이므로 요인1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종합정보 검색포털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도서관 홈페이지와 도서관을 상대적으로 더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인2의 경우 '학술정보 검색포털', '온라인 백과사전'의 요인적재량이 각각 0.57, 0.43으로 요인2와 밀접한 관계이고, '지인'의 요인적재량은 -0.91로서 요인2와 매우 상반되는 관계이다. 요인3의 경우 '온·오프라인 서점', '직접 도서관 방문'은 요인적재량이 각각 0.78, 0.58로서 요인3과 밀접한 관계이고, '전문정보 검색포털', '관련 커뮤니티'의 요인적재량은 -0.63, -0.47로서 요인3과 상반되는 관계이다. 요인4의 경우 '소

설 미디어’, ‘관련 커뮤니티’는 요인적재량이 각각 0.88, 0.51로서 요인4와 밀접한 관계로 나타났다. ‘학술정보 검색포털’, ‘보고서구매사이트’의 요인적재량은 -0.51, -0.49로서 상반되는 관계로 나타났다.

끝으로, 요인점수 계수행렬을 이용하여 4개 요인들로 압축된 선호정보원그룹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는 요인1에서 사고형(0.13)과 감정형(-0.28) 간 ($p=0.024$)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형이 감정형 보다 요인1에 속한 정보원(정보구매 및 종합정보검색)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6〉 참조).

(2) OPAC 탐색패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정보탐색 시 선호하는 온라인 탐색기법의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예상한 대로 대학생들은 ‘단순 키워드 검색’(3.62)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세검색’(2.27) ‘전자저널이나 webDB에 각각 접속해 정보검색’(1.98), ‘DB를 복수로 선별하여 통합검색’(1.64)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성격 집단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 선호 탐색 기법에 차이가 있는지 가설 검증을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 검정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성격 집단에 따라 ‘단순 키워드 검색’($p=0.007$), ‘상세검색’($p=0.002$), ‘전자저널이나 webDB에 각각 접속해 정보검색’($p=0.006$)의 세 가지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사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정형(3.82)이 본능형(3.74)과 사고형(3.31)과 비교하여 ‘단순 키워드 검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형과 사고형 간($p=0.021$)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고형(2.57)과 본능형(2.32)이 감정형(1.86) 보다 ‘상세검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형과 감정형 간($p=0.000$) 그

〈표 6〉 회전된 요인행렬

정보원	요인	요인 1 (정보구매 및 종합정보 검색)	요인 2 (학술정보 및 백과사전 검색)	요인 3 (서점 및 직접 도서관 방문)	요인 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온라인 도서관 홈페이지		-0.75	0.28	0.01	-0.05
보고서 구매사이트		0.66	-0.24	-0.02	-0.49
종합정보검색포털		0.65	0.24	-0.02	0.21
지인		-0.04	-0.91	0.02	-0.13
학술정보검색포털		-0.17	0.57	-0.37	-0.51
온라인 백과사전		-0.30	0.43	0.12	-0.14
온.오프라인 서점		0.22	0.03	0.78	-0.01
전문정보검색 포털		0.26	0.24	-0.63	-0.23
직접 도서관 방문		-0.47	0.25	0.58	0.09
소셜 미디어		0.04	0.00	0.13	0.88
관련 커뮤니티		0.41	-0.40	-0.47	0.51

〈표 7〉 OPAC 탐색 유형

정 보	성격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단순 키워드 검색을 한다	사고형	3.31	1.33	.007**
	감정형	3.82	0.66	
	본능형	3.74	0.75	
	전체(순위)	3.62(1)	0.99	
상세검색 화면을 이용해 불리언 연산자 검색 또는 필드 검색을 수행한다	사고형	2.57	1.20	.002**
	감정형	1.86	1.09	
	본능형	2.32	1.04	
	전체(순위)	2.27(2)	1.14	
전자저널이나 webDB에 각각 접속해 상세하게 정보를 검색한다	사고형	1.72	1.00	.006**
	감정형	2.27	0.86	
	본능형	2.00	0.95	
	전체(순위)	1.98(3)	0.96	
DB를 복수로 선별해 선별된 DB 내에서 통합 검색한다	사고형	1.52	0.94	.104
	감정형	1.86	0.84	
	본능형	1.59	0.91	
	전체(순위)	1.64(4)	0.91	

리고 본능형과 감정형 간(p=0.002)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전자저널이나 webDB에 각각 접속해 정보검색'에서는 감정형(2.27)과 사고형(1.72) 간(p=0.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사고형은 '상세검색'을 가장 선호하고, 감정형은 가장 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감정형은 '전자저널이나 webDB에 각각 접속해 정보검색'하는 것을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선호하며 사고형은 가장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보수집 패턴

힘의 중심에 따른 정보수집패턴은 〈표 8〉과 같다. 전체적으로 '정보가 필요할 때만 검색하고 지인들과 공유하는 편'이 54.5%로 가장 높으

며, 다음으로 '정보가 필요할 때만 검색하고 혼자 간직하는 편'(16.5%),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지인들과 공유하는 편'(12.1%), '정보를 미리 파악하지만 혼자 간직하는 편'(8.5%), '남들보다 정보를 늦게 입수하는 편'(8.5%)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특성이 학습정보수집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3으로 힘의 중심과 정보수집특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가 필요할 때만 검색하고 혼자 간직하는 편'에서 본능형(26.3%)이 사고형(9.0%)과 감정형(12.3%)보다 더 높은 값이 나왔다. 다른 한편, 사고형은 '정보를 미리 파악하지만 혼자 간직하는 편'(16.4%)을 '정보가 필요할 때만 검색하고 혼자 간직하는 편'(9.0%)보다 더

〈표 8〉 정보수집 패턴

수집패턴		정보수집패턴					전체	
		①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지인들에게 알리는 편	②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혼자 간직하는 편	③ 필요할 때만 정보를 수집하고 지인들과 공유하는 편	④ 필요할 때만 정보를 수집하고 혼자 간직하는 편	⑤ 남들보다 정보를 늦게 입수한다.		
힘의 중심	사고형	빈도	7	11	40	6	3	67
		백분율(순위)	10.4%(3)	16.4%(2)	59.7%(1)	9.0%(4)	4.5%(5)	100.0%
	감정형	빈도	5	1	36	7	8	57
		백분율(순위)	8.8%(4)	1.8%(5)	63.2%(1)	12.3%(3)	14.0%(2)	100.0%
	본능형	빈도	12	5	33	20	6	76
		백분율(순위)	13.8%(3)	6.6%(5)	43.4%(1)	26.3%(2)	7.9%(4)	100.0%
전체	빈도	24	17	109	33	17	200	
	백분율(순위)	12.0%(3)	8.5%(5)	54.5%(1)	16.5%(2)	8.5%(5)	100.0%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사고형(①+②=26.8%)은 정보를 미리 수집하는 경향이 높으며, 반대로 감정형(④+⑤=26.3%)은 정보를 남보다 늦게 입수하거나 필요할 때 수집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3 학술 정보탐색 문제점, 장애 인식도 및 만족도

(1) 정보탐색 문제점

학술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이나 검색된 결과를 분석할 때 부딪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은 〈표 9〉와 같다.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검색결과'(2.76)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탐색기술 및 전략 부족'(2.35), '정보원의 신뢰성'(1.69) 순으로 나타났다. 성격 집단에 따라 정보탐색 문제점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 검정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너무 많은 검색결과'(p=0.013)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탐색시 문제점의 차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너무 많은 검색결과'에서 감정형(3.21)이 사고형(2.59)과 본능형(2.60)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1 & p=0.009).

(2) 정보탐색 장애 인식도

성격 집단에 따라 학습 정보탐색 시 일반적으로 느끼는 장애 인식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 검정을 수행하였다. 정보탐색 시 장애 인식도는 리커트 5점 척도(1점: 장애가 거의 없다, 5점: 장애가 매우 많다)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장애 인식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69)(〈표 10〉 참조). 따라서 아홉 가지 성격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시 분석한 결과, 정보탐색 장애 인식도가 성취자(3.33), 사색가(2.94), 낙천가(2.76), 예술가(2.62)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조력가(1.91)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성취자와 조력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표 9〉 정보탐색 문제점

구 분	성격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너무 많은 검색결과 중 적합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사고형	2.59	1.50	0.013*
	감정형	3.21	1.05	
	본능형	2.60	1.41	
	전체(순위)	2.76(1)	1.37	
탐색기술 및 전략부족으로 적합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사고형	2.29	0.81	0.492
	감정형	2.46	0.66	
	본능형	2.32	0.88	
	전체(순위)	2.35(2)	0.80	
정보원이 불분명해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사고형	1.69	1.20	0.958
	감정형	1.65	1.06	
	본능형	1.71	1.19	
	전체(순위)	1.69(3)	1.13	
기 타	사고형	0.06	0.49	0.500
	감정형	0.00	0.00	
	본능형	0.10	0.62	
	전체(순위)	0.06(4)	0.48	

를 보였다(p=0.005).

〈표 10〉 정보탐색 장애 인식도

성격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사고형	2.63	.83	.069
감정형	2.47	.93	
본능형	2.28	.95	
전체	2.45	.91	

(3) 만족도

정보탐색을 위해 직접 수행했던 전반적인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리커드 5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5점: 매우 만족)로 측정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은 3.62이고 세 가지 성격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표 11〉 참조). 따라서 아홉가지 성격유형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조력자(4.0), 지도자(3.89), 낙천가(3.79), 예술가(3.52)순으

로 높게 나타났고, 성취자(2.7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력자(4.0)와 성취자(2.75) 간(p=0.010), 조력자(4.0)와 예술가(3.52) 간(p=0.012)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11〉 만족도

성격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사고형	3.59	.679	.516
감정형	3.55	.784	
본능형	3.68	.594	
전체	3.62	.679	

4.2.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1) 소셜 미디어 활용

대학생들은 소셜 미디어 이용 시 '타인이 작성한 글을 읽고 공감하는 일'이 3.37로 나타나 가장 선호하는 활동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상공간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타인이 올린 글이

나 정보를 확인하는 일'(2.89), '타인이 작성한 글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인용하는 일'(2.54), '고유한 자신의 글을 새롭게 작성하는 일'(0.11)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의 중심에 따른 소셜 미디어 이용 분포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사고형은 '고유한 자신의 글을 새롭게 작성하는 일'(2.12), '타인이 작성한 글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인용하는 일'(2.64)에 있어서 다른 두 가지 유형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 소셜 미디어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본능형은 '고유한 자신의 글을 새롭게 작성하는 일'(1.79)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면서 '해당사항 없음'(0.17)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점으로 보아서 다른 유형에 비해

소셜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편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설 검증을 수행한 결과, '타인이 작성한 글을 읽고 공감하는 일'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2$). 성격 집단 간 소셜 미디어 이용의 차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사고형(2.87)과 감정형(3.61) 간 ($p=0.009$) 그리고 사고형(2.87)과 본능형(3.62) 간($p=0.005$)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상공간 활동

대학생들의 가상공간 활동을 조사한 결과, <표 13>에서 나타난 것처럼 싸이월드, 네이버 블로그 등의 개인 홈페이지 운영이 139건 (5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커

<표 12> 소셜 미디어 활동

소셜 미디어 활동	성격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고유한 자신의 글을 새롭게 작성하는 일	사고형	2.12	1.62	.368
	감정형	1.84	1.37	
	본능형	1.79	1.38	
	합계(순위)	1.92(4)	1.46	
타인이 작성한 글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인용하는 일 (예, 트위터의 댓글이나 리트윗)	사고형	2.64	1.38	.704
	감정형	2.53	1.28	
	본능형	2.46	1.24	
	합계(순위)	2.54(3)	1.29	
타인이 작성한 글을 읽고 공감하는 일 (예,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	사고형	2.87	1.54	.007**
	감정형	3.61	1.52	
	본능형	3.62	1.62	
	합계(순위)	3.37(1)	1.60	
가상공간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타인이 올린 글이나 정보를 확인하는 일	사고형	3.00	1.95	.820
	감정형	2.86	1.81	
	본능형	2.80	1.94	
	합계(순위)	2.89(2)	1.90	
해당사항 없음	사고형	0.04	0.64	.631
	감정형	0.09	0.66	
	본능형	0.17	1.00	
	합계(순위)	0.11(5)	0.80	

〈표 13〉 가상 공간 활동 (1)

에니어그램 힘의 중심	빈도 (%)	가상공간 활동 응답 수 (중복)				
		싸이월드, 네이버 블로그 등의 개인 홈페이지 운영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페이지 등) 운영	개인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의 개인 페이지 운영	해당사항 없음
사고형 (N=67)	빈도	49	21	4	2	9
	%	73.1	31.3	6.0	3.0	13.4
감정형 (N=57)	빈도	44	36	2	4	3
	%	77.2	63.2	3.5	7.0	5.3
본능형 (N=76)	빈도	46	42	4	0	12
	%	60.5	55.3	5.3	0.0	13.8
전 체	빈도	139	99	10	6	24
	%	50.0	35.6	3.6	2.2	8.6

뮤니티 운영이 99건(35.6%), 해당사항 없음이 24건(8.6%), 개인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이 10건(3.6%) 순으로 나타났다. 성격 집단별로 살펴보면, 사고형(73.1%)은 '개인 홈페이지 운영'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정형(63.2%)과 본능형(55.3%)은 사고형(31.3%)에 비해 '커뮤니티 운영' 활동 또한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는 〈표 13〉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상 공간 활동에 관여한 수를 계산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만약 조사 응답자가 〈표 14〉에서 처음 두 개의 항목에 응답하였다면 '2'로 기술하여 분석하였다. 성격 특성이 가상 공간 활동의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0로 성격 특성과 가상 공간 활동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정형의 평균값이 1.46으로 가장 높게 나와서 본능형(1.09)이나 사고형(1.06)보다 가상 공간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가상 공간 활동 (2)

성격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사고형	1.06	.61	.000**
감정형	1.46	.60	
본능형	1.09	.63	
전체	1.19	.64	

4.3 요약 및 논의

4.3.1 성격 특성이 정보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가설 1(성격 특성에 따라 정보이용동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세 가지 힘의 중심에 의해서 검증되었다. 감정형은 학습정보를 본능형이나 사고형 보다 더 많이 탐색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고형과 본능형은 학습정보보다 생활정보를 더 많이 탐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 2(성격 특성에 따라 학술 정보수집과 탐색 행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힘의 중심 그룹에 의해서 모두 검증되었다.

(1) 선호하는 정보원: 본 연구 결과에서는 호

니비언 그룹의 공격형 집단에 속한 낙천가와 성취자가 지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einström(2003)은 외향성이 높은 학생들은 유용한 정보를 지인과 같은 비공식적인 정보원을 통해서 얻는 경향이 높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음은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11개의 정보원을 4개의 요인으로 축소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정보 검색포털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도서관 홈페이지와 도서관을 상대적으로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학술정보 검색포털과 온라인 백과사전을 많이 사용할 수록 지인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요인1에서 사고형(0.13)과 감정형(-0.28) 간 ($p=0.024$)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고형이 감정형 보다 요인1에 속한 정보원(정보구매 및 종합정보검색)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OPAC 탐색패턴: 사고형은 '상세검색'을 가장 선호하고, 감정형은 가장 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른 한편, 감정형은 '전자저널이나 webDB에 각각 접속해 정보검색'을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선호하며 사고형은 가장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고형과 감정형은 OPAC 탐색패턴에서 서로 다른 행태를 보였다.
- (3) 정보수집 패턴: 사고형은 정보를 미리 수집하는 경향이 높으며, 반대로 감정형은 정보를 남보다 늦게 입수하거나 필요할 때 수집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고형과 감

정형은 정보수집 활동에서도 서로 다른 행태를 보였다.

3) 가설 3(성격 특성에 따라 학술 정보탐색 문제점, 장애 인식도 및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세 가지 힘의 중심에 의해서 정보탐색 문제점이 검증되었고 아홉 가지 성격유형에 의해서 정보탐색 장애 인식도와 만족도가 검증되었다.

- (1) 정보탐색 문제점: '너무 많은 검색결과'에서 감정형(3.21)이 사고형(2.59)과 본능형(2.60)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정보탐색 장애 인식도: 세 가지 힘의 중심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 성격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아홉 가지 성격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성취자(3.33), 사색가(2.94), 낙천가(2.76), 예술가(2.62)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조력가(1.91)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성취자와 조력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5$). Halde 등(2010)은 지각된 장애 수준과 신경증은 양적인 상관 관계가 있는 반면, 성실성과는 부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정영미(2012)는 탐색과정의 쉬움에 대한 평가는 본능형, 감정형, 사고형 순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호니비언 그룹의 공격형 집단에 속한 성취자와 낙천가 그리고 사색가가 느끼는 정보탐색의 장애 인식도가 다른 성격유형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3) 만족도: 힘의 중심 그룹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성격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영미(201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아홉 가지 성격유형들로 분석한 결과, 조력가(감정형)(4.0), 지도자(본능형)(3.89), 낙천가(사고형)(3.79), 예술가(감정형)(3.52)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성취자(감정형)(2.7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4) 가설 4(성격 특성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세 가지 합의 중심에 의해서 모두 검증되었다.

(1) 소셜 미디어: 사고형은 '고유한 자신의 글을 새롭게 작성하는 일', '타인이 작성한 글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인용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두 가지 유형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 소셜 미디어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본능형은 '고유한 자신의 글을 새롭게 작성하는 일'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면서 '해당사항 없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점으로 보아서 다른 유형에 비해 소셜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편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가상공간 활동: 사고형(73.1%)은 '개인 홈페이지 운영'에 집중하며, 감정형(63.2%)과 본능형(55.3%)은 사고형(31.3%)에 비해 '커뮤니티 운영' 활동 또한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 공간 활동에 참여한 수를 측정한 결과, 감정형은 '2개 이상 사용'이 51.8%로 가장 높게 나와서 다른 두 유형, 사고형(21.2%)이나

본능형(24.4%)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한 가상 공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정보 이용 동기, 정보수집과 탐색 행태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에서 사고형과 감정형은 서로 다른 또는 상반된 정보이용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정보이용동기에서 감정형은 학습정보를 사고형 보다 더 많이 탐색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사고형은 생활정보를 감정형보다 더 많이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PAC 탐색 시 사고형은 '상세검색'을 가장 선호하지만 감정형은 가장 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고형은 정보를 미리 수집하는 경향이 높으며, 반대로 감정형은 정보를 남보다 늦게 입수하거나 필요할 때 수집하는 경향이 있었다. 끝으로, 소셜 미디어 사용시 사고형은 감정형에 비해서 고유한 자신의 글을 새롭게 작성하거나 댓글을 작성하는 일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소셜 미디어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상공간 활동에 관련한 수를 측정한 결과, 감정형은 '2개 이상 사용'이 51.8%로 가장 높게 나와서 21.2%가 나온 사고형과 비교하면 더 다양한 가상 공간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학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정보검색 및 활용 교육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규모 집단의 오프라인 교육인 경우는 도서관은 일부 대학들이 신입생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성격 조사의 분석 데이터를 학생들의 허락을 통해서 도서관 이용자 프로파일에 연계시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약 70%가 속해있는 사고형과 본능형은 학습정보보다 생활정보를 더 많이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보공유 공간(information commons) 개념의 도입으로 도서관이 처리하는 정보의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도서관은 학술 정보는 물론 생활정보 및 취업정보를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탐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활용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보탐색 문제점에서 감정형은 너무 많은 검색결과 중 적합정보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다른 두 집단들 보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탐색 과정에서 적합성을 판정하는 적절한 시점에 대한 지식 또는 패킷을 활용하여 검색을 좁혀가는 탐색 전략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외에 정보탐색의 장애 인식도 측면에서 성취자, 낙천가 및 사색가가 느끼는 정보탐색의 장애 정도가 다른 성격 유형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도서관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설계 및 도서관의 물리적인 공간 구성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은 단순 키워드검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고형은 상세검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탐색기법을 초기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성격별로 선호하는 탐

색기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모드에서 다른 검색 모드로 쉽게 변환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요구된다. 또한 학술 정보수집패턴에서 정보가 필요할 때만 검색하고 지인들과 공유하는 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공동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3.2 힘의 중심의 각 성격 집단에 속한 성격 유형들이 정보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가설 5(사고형에 속한 사색가, 충성가 및 낙천가 간의 정보추구행태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1) 정보이용동기: 생활정보의 이용을 사고형에 속한 세 가지 성격유형들로 분석한 결과, 낙천가(4.68), 충성가(4.55) 및 사색가(4.29)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학술 정보수집과 탐색패턴: 선호정보원의 '보고서 구매사이트'의 항목에서는 낙천가(5.83), 충성가(3.63), 사색가(3.31)순으로 나타났고, 낙천가(5.83)와 사색가(3.31) 간($p=0.008$) 그리고 낙천가(5.83)와 충성가(3.63) 간($p=0.017$)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고형 중에선 낙천가가 충성가와 사색가보다 '보고서 구매사이트'를 월등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PAC 탐색패턴의 '상세검색'을 사고형에 속한 세 가지 성격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사색가(2.71), 충성가(2.64), 낙천가(2.43)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한편 '단순검색'의 경우 사색가(3.82), 낙천가(3.75), 충성가(2.36)순으로 나타났고, 사색가와 충성가 간($p=0.039$)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보수집 패턴에서 '정보를 미리 파악하지만 혼자 간직하는 편' 항목을 분석한 결과, 사색가(58.8%), 낙천가(3.6%), 충성가(0%) 순으로 나타나 사색가가 이 항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3) 학술 정보탐색 문제점, 장애 인식도 및 만족도: 정보탐색 장애의 경우는 사색가(2.94), 낙천가(2.76), 충성가(2.18)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사고형에 속한 낙천가(3.79), 충성가(3.67), 사색가(3.18)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 (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가상 공간 활동에 참여한 정도를 측정된 결과에서 사고형에 속한 세 가지 성격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사색가(1.13), 충성가(0.91), 낙천가(1.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가설 6(감정형에 속한 조력가, 성취자 및 예술가 간의 정보추구행태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 (1) 정보이용동기: 학습정보의 이용을 감정형에 속한 세 가지 성격유형들로 분석한 결과, 조력가(4.57)가 성취자(4.25) 및 예술가(4.0)에 비해서 높은 값을 나타냈으나 이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 (2) 학술 정보수집과 탐색패턴: OPAC 탐색 패턴의 '단순 키워드 검색'을 분석한 결과, 성취자(3.92)가 예술가(3.71)와 조력가(3.87)에 비해서 높은 값을 나타냈으나 이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전자저널이나 webDB에 각각 접속해 정보검색' 항목에서는 성취자(2.58)와 예술가(2.57)가 조력가(1.83)에 비해서 더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성취자와 조력가 간($p=0.023$) 그리고 예술가와 조력가 간($p=0.008$)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보수집 패턴의 '남들보다 정보를 늦게 입수하는 편' 항목을 분석한 결과, 성취자(58.3%), 예술가(4.5%), 조력가(0%) 순으로 나타나 예상과 달리 성취자가 정보를 남들보다 늦게 수집하는 경향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3) 학술 정보탐색 문제점, 장애 인식도 및 만족도: 정보탐색시 문제점 중 '너무 많은 검색결과'항목으로 인해서 느끼는 어려움이 조력가(3.48)와 예술가(3.32)가 성취자(2.5)에 비해서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조력가(3.48)와 성취자(2.5) 간($p=0.032$)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보탐색 장애의 인식도는 성취자(3.33), 예술가(2.62), 조력가(1.91)순으로 나타났고, 성취자와 조력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5$). 이와 같이 감정형에 속한 성취자와 조력가가 장애 인식도에서 최고값과 최저값을 보여줌으로서 감정형에

속한 성격유형들은 유사한 정보탐색 장애 인식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 감정형에 속한 조력가(4.0)와 성취자(2.75) 간($p=0.010$) 그리고 조력가(4.0)와 예술가(3.52) 간($p=0.012$)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가상 공간 활동에 관련한 정도를 측정된 결과에서 감정형에 속한 성취자(1.67)와 예술가(1.62)가 조력가(1.22)보다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3) 가설 7(본능형에 속한 지도자, 중재자 및 개혁가 간의 정보추구행태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 (1) 정보이용동기: 학습정보의 이용을 본능형에 속한 세 가지 성격유형들로 분석한 결과, 지도자(4.78), 개혁가(3.67), 중재자(3.46) 순으로 나타났고, 지도자와 중재자 간($p=0.000$) 그리고 지도자와 개혁가($p=0.036$)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2) 학술 정보수집과 탐색패턴: 선호정보원의 '보고서 구매사이트'의 항목에서는 중재자(4.23), 지도자(3.44), 개혁가(2.54) 순으로 나타났고 중재자(4.23)와 개혁가(2.54) 간(0.040)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재자가 지도자와 개혁가 보다 '보고서 구매사이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PAC 탐색패턴에서 '단순 키워드검색'의 경우 개혁가(4.0), 지도자(3.89), 중재

자(3.63) 순으로 나타났고, '상세검색'에서는 중재자(2.54), 개혁가(2.13), 지도자(1.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경우 모두 성격유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전자저널이나 webDB에 각각 접속해 정보검색'항목에서는 지도자(2.11), 중재자(2.04), 개혁가(1.80)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 (3) 학술 정보탐색 문제점, 장애 인식도 및 만족도: 정보탐색 장애에 대한 인식도는 개혁가(2.41), 지도자(2.25), 중재자(2.25)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만족도는 개혁가(2.53), 중재자(2.31), 지도자(2.11)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 (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소셜 미디어 활동의 '고유한 자신의 글을 새롭게 작성하는 일' 항목에서 본능형에 속한 세 가지 성격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지도자(2.78), 개혁가(2.0), 중재자(1.56)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본능형은 총 8개의 사례에서 정보이용동기와 선호정보원의 '보고서 구매사이트'의 두 개 항목을 제외하고 여섯 가지 경우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추구행태에서 가장 차이가 작은 성격유형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사고형은 8개의 사례에서 다섯 개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형의 경우는 8개의 사례에서 다섯 개의 경우가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차이가 큰 성격 유형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앞의 감정형 분석 데이터에서 살펴보면, 성취자는 정보 수집패턴과 학술 정보탐색 장애 측면에서 조력가와 예술가와는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추구행태 분석 시에는 감정형집단에 예술가와 조력가만 포함시키고 성취자는 따로 분리하거나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다른 집단에 포함시켜 분석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에니어그램 성격 특성(세 가지 힘의 중심 그룹과 아홉 가지 성격유형들)에 따른 이용자의 정보추구행태의 차이를 살펴봄과 동시에 힘의 중심 그룹의 각 성격 집단에 속한 성격유형들이 유사한 정보추구행태를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와 제언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가지 힘의 중심에 따라서 정보이용 동기, 학술 정보수집과 탐색 행태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탐색 문제점, 장애 인식도 및 만족도에 속한 정보탐색 문제점은 힘의 중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정보탐색 장애 인식도와 만족도는 힘의 중심으로 차이를 구별할 수 없어서 아홉 가지 성격유형들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두 개 모두 성격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보이용동기, 학술 정보수집과 탐색패턴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에서 사고형과 감정형은 서로 다른 또는 상반된 정보추구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즉,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정보검색 및 활용 교육과 도서관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설계 및 도서관의 물리적인 공간 구성에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것은 요약과 논의 부분("4.3.1 성격 특성이 정보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자세하게 기술되었다.

둘째, 힘의 중심 그룹의 각 성격 집단에 속한 성격유형들이 유사한 정보추구행태를 보이는지 조사한 결과, 세 가지 성격 집단 모두 다 일관성 있는 유사한 정보추구행태를 보이지는 못했다. 다만 본능형집단에 속한 성격유형들은 서로 가장 유사한 정보추구행태를 보였고, 감정형집단에 속한 성격유형들은 가장 상이한 정보추구행태를 나타냈다.

셋째, 호니비언 그룹의 공격형집단에 속한 낙천가와 성취자가 지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정보탐색의 장애 인식도가 다른 성격유형들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격형 집단에 속한 또 다른 성격유형인 지도자는 아홉 가지 성격유형에서 지인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 인식도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니비언 그룹은 힘의 중심 그룹에서 차이를 보이지 못한 정보탐색 장애 인식도에서 공격형이 순응형과 움추리는형 보다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른 한편 호니비언 그룹은 힘의 중심 그룹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정보이용동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못했다.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로 판단해 볼 때 호니비언 그룹의 각 성격 집단에 속한 성

격유형들이 일관성 있게 유사한 정보추구행태를 보일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대학 도서관 현장에서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세밀하게 분류된 아홉 가지 성격유형보다 이들 성격유형들을 유사한 것 끼리 묶어서 그룹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힘의 중심 그룹은 물론 호니비언 및 하모닉 그룹을 이용한 체계적인 분석

을 토대로 하여 아홉 가지 성격유형들을 정보추구행태에 따라 유사한 성격유형들로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그룹의 제안도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본 연구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자연과학계열 대학생들은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성격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고 계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희섭. 2004. Web OPAC 이용패턴과 MBTI 성격유형의 상관관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4): 229-250.
- [2] 송하나, 권나현. 2011. 대학생의 성격 특성과 학업 성취와의 관계에서 정보 활용 유능감의 매개 효과 분석. 『청소년학 연구』, 18(3): 331-353.
- [3] 심진섭, 조정자. 2008. 성격유형과 인지양식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34-235.
- [4] 유재욱. 1990. 정보검색자의 인지양식이 정보검색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 189-241.
- [5] 윤운성. 2001. 『한국형 에니어그램 프로파일』. 서울: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 [6] 윤운성. 2004. 에니어그램의 분석적 고찰과 과제. 『에니어그램연구』, 1(2): 9-32.
- [7] 이제환. 2009. 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의 관계: 대학 신입생을 사례로 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161-182.
- [8] 정영미. 2012.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따른 OPAC 탐색 성향과 만족도. 『정보관리학회지』, 29(3): 169-186.
- [9] 최문정, 정동열. 2013. 장독립-장의존 인지양식이 대학생의 정보탐색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125-147.
- [10] 한운옥. 2010. 성격유형과 독서성향 관계에 기초한 독서치료 가능성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25-59.
- [11] 한운옥, 조미아. 2011. 독서교육에 있어서 청소년의 성격유형과 독서성향의 관련성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69-88.
- [12] Carver, C. 2004. "Negative affects deriving from the behavioral approach system." *Emotion*,

- 4(1): 3-22.
- [13] Chowdhury, G. 2010. *Introduction to modern information retrieval*, Third Edition. Facet Publishing.
- [14] Kuhlthau, C. 1993. *Seeking meaning: a proces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Norwood, NJ: Ablex.
- [15] Halder, S., Roy, A. and Chakraborty, P. 2010.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on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Malaysian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5(1): 41-53.
- [16] Head, A. and Eisenberg, M. 2011. "How college students use the web to conduct everyday life research." *First Monday*, 16(4). [cited 2014. 5. 20.]
<<http://journals.uic.edu/ojs/index.php/fm/article/view/3484/2857>>
- [17] Heinström, J. 2003.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their influence on information behavior." *Information Research*, 9(1). [cited 2014. 3. 20.]
<<http://acmd615.pbworks.com/f/Fivepersonalitydimensions1.pdf>>
- [18] Heinström, J. 2005. "Fast surfing, broad scanning and deep diving: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and study approach on students' information-seeking behavior." *Journal of Documentation*, 61(2): 228-247.
- [19] Ingwersen, P. 1996. "Cognitive perspectives of information retrieval interaction: elements of a cognitive IR theory." *Journal of Documentation*, 52(1): 3-50.
- [20] Ingwersen, P. 2001. Cognitive information retrieval. In Williams, M. (ed.).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34: 3-52.
- [21] Kwon, N. and Song, H. 2011. "Personality traits, gender, and information competency among college students." *Malaysian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6(1): 87-107.
- [22] Lee, J. and Boling, E. 2008. "Information-conveying approaches and cognitive styles of mental modeling in a hypermedia-based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9(4): 644-661.
- [23] Majid, S. and Kassim, G. 2000. "Information seeking behaviour of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Malaysia law faculty members." *Malaysia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 1-17.
- [24] Phares, J. 1991. *Introduction to psychology*.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 [25] Riso, D. and Hudson, R. 1996. *Personality types: using the Enneagram for self-discovery*. Boston: Houghton Mifflin.
- [26] Wilson, T. 1999. "Models in information behaviour research." *Journal of Documentation*, 55(3): 249-270.

- [27] Wilson, T. 2000. "Human information behavior." *Informing Science*, 3(2): 49-55.
- [28] Witkin, H. A. and Goodenough, D. R. 1977. "Field dependence and interperson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84(4): 661-689.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H. 2004. "Correlation between Web OPAC use patterns and MBTI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4): 229-250.
- [2] Song, H. and Kwon, N. 2011.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and information competency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the analysis of a mediation effect of information competency." *Journal of Korea Youth Research*, 18(3): 331-353.
- [3] Sim, J. and Cho, K. 2008. "The relations between psychological types and cognitive styles." *Proceedings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234-235.
- [4] Yoo, J. 1990. "Field dependence/independence and the performance of the online search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 189-241.
- [5] Yun, U. 2001. *Korean enneagram profile*. Seoul: Korea Eenneagram Education Center.
- [6] Yun, U. 2004. "The analytical review and future directions of Eenneagram."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1(2): 9-32.
- [7] Lee, J. 2009. "Personal traits and information behavior: the case of college freshme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161-182.
- [8] Jung, Y. 2012. "Influences of Enneagram personality types on OPAC searching and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3): 169-186.
- [9] Choi, M. and Jeong, D. 2013. "A study on effect of cognitive style of field dependence/independence to the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1): 125-147.
- [10] Han, Y. 2010.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Bibliotherapy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Reading Tenden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3): 25-59.
- [11] Han, Y. and Cho, M.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 of personality type and reading tendency of the youth in read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69-88.